

2024. 1. 31.(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30일 오전 11:3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경제정책실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장	박서영	02-2133-8731
바이오정책팀장	안명희	02-2133-8732
담당자	최경화	02-2133-8734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www.seoulbiohub.kr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2쪽

서울시, 셀트리온과 손잡고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성장 지원한다

- 글로벌센터 1호 민관협력 프로그램·30(화) 서울바이오허브-셀트리온-창업기업 3자 업무협약
- 서울바이오허브 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셀트리온의 노하우 합쳐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
- 시, “국내외 대중견 기업, 글로벌 기업 간 활발한 협력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사례 만들 것”

- 유망 바이오·의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오는 4월 개관을 앞둔 가운데, 국내 바이오 대표기업 셀트리온과 손잡고, 될성부른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에 나선다.
- 서울시는 30일(화) 서울바이오허브, 셀트리온과 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저분자화합물,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4개 기업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바이오허브-셀트리온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최종 선정된 4개 기업은 메디맵바이오(대표 강유희, 조홍석), 아테온바이오(대표 최소희), 에스앤케이테라퓨틱스(대표 최상돈), 엔테로바이옴(대표 서재구)이다.
 - 서울바이오허브(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권정환))는 지난 11월에 셀트리온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협약에 따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시설과 장비 활용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기업 진단에 따른 맞춤형 기업 성장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지원 컨설팅 ▲국내외 시장 개발 검증 ▲판로개척 기업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등 바이오의료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한다. 선발된 4개 기업은 서울바이오허브에 기본 3년, 1년 단위 연장평가 통해 최장 창업 10년 차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이날 협약식에 이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셀트리온은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으로 신약 개발을 통해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축적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컨설팅, 공동 연구로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협력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기업과의 협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인천 송도에 위치한 셀트리온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선발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약식(셀트리온-서울바이오허브-창업기업)과 함께 프로그램 안내 및 연구소 투어 등이 진행됐다.

-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4월 개관을 앞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민관협력을 통한 글로벌 진출이 주목적인데,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첫 단추를 셀트리온과 하게 되었다.”며, 바이오·의료 분야의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창업기업의 기술 이전, 대·중견기업과의 공동 연구 등이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외 대중견기업, 글로벌 바이오·의료 기업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오픈 이노베이션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사진



▶ 왼쪽부터 메디맵바이오 조홍석 대표, 강유희대표, 서울바이오허브 김현우센터장, 셀트리온 권기성 수석부사장, 아테온바이오 최소희 대표, 에스앤케이테라퓨틱스 최상돈 대표, 엔테로바이옴 서재구 대표 순



▶ 1열 왼쪽부터 선발기업 메디맵바이오 조홍석 대표, 강유희 대표, 셀트리온 권기성 수석 부사장, 서울시 박서영 첨단산업과장, 서울바이오허브 김현우 센터장, 아테온 바이오 최소희 대표, 엔테로바이옴 서재구 대표, 에스앤케이테라퓨틱스 최상돈 대표 순